

Barking, Housesoiling, separation anxiety의 치료적 접근

연성찬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짖기와 과도한 발성

짖는 것은 환경과 패턴 그리고 짖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사 표현중 하나이다. 인간과 개 사이의 첫 번째 관계는 경계 견으로서 개의 이용성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짖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좀 더 좋은 경계자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 교미를 행하여 왔다. 지나친 짖음은 개가 무는 것 다음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고 치료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개가 주인과 타인들에게 만들어내는 문제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주인이 개로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었을 경우엔 더 커다란 낭패를 당하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개들이 짖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한다.

- 언제 그리고 어디서 개가 짖는가?
- 개들이 짖는 대상은 무엇인가?
- 어떠한 자극이 개들을 짖게 하는가?
- 개가 짖음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개들은 특정한 문제가 없이도 다른 경우에서도 짖는가?
- 개들이 짖을 때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으면 문제점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지나친 짖음이 분리 불안의 증상 이라면 이것은 심도 깊게 관찰되어야한다.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인지 의식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은 귀머거리 성견은 특별한 자극 없이도 오랜 시간 짖는게 특징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저지하기위해 압박을 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anti-barking 장치는 짖는 동기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하다 판단될 때까지 사용하면 안 된다. 전기 Shock collar 역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쓰이면 안 된다.

영역 방어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역 방어적 짖음은 매우 강하게 동기가 부여되며 강한 쇼크 등으로 저지된다고 해도 개는 이를 무시 할 것이다. 짖는 것이 어느 정도 저지된다 하더라도 개들은 그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것이다. 즉 조용하게 공격할 것이다. 가끔 영역 방어적 행동은 두려움과 위협을 인지하는데서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는 쇼크를 경험한 것을 침입자와 연관시킬 것이고 이는 곧 심하게 거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Shock collar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있고 또한 동물 복지상의 문제로서 떠오르고 있다. 보통 때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개들의 모든 짖음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적응력이 뛰어난 개들은 반복되는 강화효과를 통해 짖음의 사용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위해 짖는 개들은 다른 일, 즉 먹이를 원할 때나 놀고 싶을 때, 그리고 산책하고 싶을 때도 짖을 수 있다. 짖는 것이 원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이 되면, 이것은 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들에게 짖는 법을 가르치고, 명령을 내리면 조용해질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짖는 행동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행동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훈련되면 개는 영역 방어나 다른 상황에서 짖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치료

① 개가 짖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보상을 제거시키는 방법에 의해 짖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당신은 짖는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여야 한다. 개가 짖는 동안은 개를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개가 15분 동안 짖고 난 후 당신이 관심을 보이거나 소리를 지른다면 당신은 짖는 것에 대한 강화효과를 제공한 것이고 짖는 것을 제거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전에 개가 보상을 받기 위해 행하던 행동을 당신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행동이 완전히 소거되기 전에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강해진다. 개가 짖는 것이 멈춰지면 음식이나 개를 만져주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②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를 훈련하라: 짖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훈련시켜라. 예를 들어 개가 Kong toy를 찾도록 훈련을 시킨다. 개가 이 명령어를 알아듣게 되면 짖으려고 시작하기 전에 그 명령어를 말 하여라. 개가 짖으려고 하는 순간 전에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결국에 짖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그러나 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에게 Kong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보호자가 행하는 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개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더욱 짖게 부추기는 것이다.

③ 명령이 주어졌을 때 짖도록 훈련시켜라. 그 다음 명령이 주어졌을 때 짖는 것을 멈추도록 훈련시켜라. 개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짖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왜냐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짖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명령에 의해 개가 짖는 것을 멈추게(멈추고 나면 보상을 하라) 할 수 있다.

④ 아마도 개가 짖는 것을 멈추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가 짖게끔 자극하는 환경에 개가 노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만약 개가 야외에서 짖는다면 개를 실내에 있게 하라. 만약 사람들의 걸음이 개를 짖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자리에 개를 두어라

⑤ 다양한 anti-bark collar가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인도적인 것은 진동센스와 개가 충격을 받기 전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기를 장착한 것이다. 이러한 collar 들은 적절히 그리고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시트로넬라 collar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collar 이다. 짖는 것이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또는 공격성에 의한 것이라면 anti-barking collar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는 적절히 처리하여 짖는 행동 자체 보다는 짖는 것의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⑥ 만약 개가 주로 짖는게 홀로 남겨진 경우라면, 분리불안 증세가 짖는 것의 원인일 수 있다. 분리불안 치료에 대한 방법은 개의 불안감 경감 부분에 지시되어 있다.

6. 영역 방어적 짖음

영역을 방어하기 위한 동기와 기회는 감소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에게 박스에서 떨어지게 하고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제거 가능한 플라스틱 필름이나 스프레이 기반의 유리 코팅제는 개가 관찰하고, 집안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간의 전망을 모호하게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전하고 불투명한 울타리는 감시되거나 안되거나 간에 개가 접근하는 지역 주변을 둘러싸야 한다. 개는 문 앞이나 자기 영역의 경계 부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신 사람이 허락할 때까지 조용한 장소에서 가만히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개는 명령에 따라 짖기와 침묵하기를 배우게 된다. 개가 짖는 것은 발성의 기능들 중 하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룹에게 경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주인은 달려가서 짖는 것을 멈추도록 하여야한다. 대신, 개는 자신이 짖던 곳에서 떠나게 되고 양전하게 앉아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연기력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자극한다면 개가 자기 영역의 경계선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줄 것이다. 연기자들은 개가 1~2분정도 침묵해 있을 때만 경계선에서 걸어 나가고 개가 그들이 떠남으로서 다시 짖는다면 급하게 되돌아와야 한다.

7. 관심 끌기 발성

개는 명령에 따라 짖고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다른 형태의 관심 끌기행동 (attention seeking behaviour) 에 대해서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8. 두려움에 의해 유발된 / 자기 방어적 짖음

주된 목적은 민감 소실과 역조건 부여 과정을 통해 동물의 공포를 줄여주는 것이다. 벌을 주는 방법들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없어지기 전에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만약 짖음을 억누르게 하면, 다른 더 공격적인 행동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몇몇 개에서, 짖음은 거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 되어왔다; 그들은 짖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목표물이 출현할 때 조용하게 있으면 이에 대하여 포상해 준다. 개는 종종 조용함이 더 성공적이고 전략이 덜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빠르게 배울 것이다.

표. 발성 문제에 대한 유형별 감별

발성의 유형	정황	목표물	자극을 유발하는 일	목적/동기	자세/행동
영역방어성 짚음	주인이 있거나 또는 없는 상태로 친숙한 장소에 있는 개	잠재적인 침입자 (사람 또는 다른 종)	목표대상이 영역에 접근하다	잠재적인 침입자, 경계하는 무리를 쫓아버리고 다른 이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침입자가 경계범위를 넘어 접근하는 경우에 부자연스러운 몸의 자세, 목덜미 일어설 수 있음, 출입 공간을 생각한 빠른 움직임, 잦은 기립과 사납게 짚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위협이 사라지면 행동도 종료됨.
관심 끌기 발성 (예: 짚음)	사람이 있는 임의의 장소	주인 (보통의 경우)	사람의 관심이 상실되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경우(음식을 달라고 보채는 것과 같은 경우)	주인으로부터 관심이나 일부 다른 호의를 얻기 위해	일관된 짚음을 자주 보이고 짚는 동안 개는 주인 또는 발걸음을 주시하기도 한다. 수분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혼자 남겨졌을 때 보이는 howling/짚음(분리불안 증상으로 볼 수 없는)	임의의 장소	없음	주인이 잠시 동안 떨어져있다. 소리 또는 다른 자극이 주인이 오고 있거나 가까이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하도록 만든다.	주인/무리와 재결합하기 위해	짚음 또는 howling은 짧고 드물며 일시적이다. (분리불안과는 다르게) 개는 보통 위와 같은 행동들 사이에 휴지기를 갖는다.
두려움과 관련된(자기 방어적인)	임의의 장소	친숙하지 않은 사람 또는 대상	사람/물건이 접근하다	인지된 위협에 대항해서 방어하기 위해	몸의 부자연스러움, 자주 위협물을 향해 돌진하고 다시 물러선다.
사회적 짚음	임의의 장소	다른 개들 또는 주인	다른 개들의 짚음, 놀이의 일부	다른 개들의 짚음에 대한 반응 또는 놀이 시	짚음은 다른 개들의 짚기가 종료되면 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분리불안과 관련됨	자기가 사는 집 또는 친밀한 장소	주인	주인과의 떨어짐	주인과 떨어짐에 대한 불안 표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인과 떨어진 후 5-30분 이내에 주로 발생하나 계속적으로 짚을 수도 있음. 침출림, 파괴행동, 대소변 아무곳에나 누기 등과 병행될 수 있음.

개에서의 배설 문제

배설 행동: 실외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개가 본능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개들은 3주 정도가 되면 배설하기 위해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 멀리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 생애에 걸쳐 그들의 보금자리와 먹이를 먹는 장소를 배설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8주 정도가 되었을 때, 강아지는 배설을 하기 원하는 장소나 어떤 바닥의 재질면을 선호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장소나 재질에 대한 선호도는 일생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복종의 신호로 배뇨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린 강아지에서 보이는 정상적 의사소통행동이다. 개들은 극도의 두려운 상태에서도 배설을 하기도 한다.

개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호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 집안에서 대, 소변을 보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경우.

둘째 분리불안으로 인한 경우.

셋째 표식행동으로 인한 경우.

넷째 과잉복종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이다(연 등).

보호자들이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개들의 교신 방법으로는 오줌표식이 있으며, 오줌표식은 일반적으로 우위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위성으로 인한 공격성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집안에서 오줌표식을 하는 개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집안에서 오줌표식을 일으키는 자극 원인은 수직의 물체이지만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는 배설, 표식, 심지어는 분리불안 등이 될 수 있다. 개들에게 있어서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나이든 일어날 수 있으나, 어릴 때와 나이가 꽤 들었을 때 많이 발생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증상과 더불어 완전한 병력청취가 필요하다. 광범위한 병적인 문제들이 배설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는 당뇨증, 다갈증, 비뇨기계 질환, 신경학적인 문제, 관절염, 노령의 원인 등이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방광천자를 통한 뇨검사 혹은 분변검사를 실시한다.

이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실험실적 검사, 방사선, 초음파검사를 하여야 한다.

병적질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행동학적 문제들을 고려한다.

불안과 관련된 배설

특징: 개들은 심한 공포를 경험할 때 오줌을 누고, 배변을 하며, 또는 항문낭의 내용물을 분비한다. 분리불안의 가장 큰 임상증상의 하나가 보호자가 없을 때 배설을 하는 것이다. 공포 또는 스트레스가 부적절한 배설에 대한 동기적 요소라면 증상으로는 혈떡거리기,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기, 파괴, 도망가는 행동, 혹은 짓기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발병 시기: 나이에 무관

치료: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을 확인한다.

"체계적민감소실법"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에 대해 역조건을 적용한다.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도움이 된다.

인지장애 증후군(치매)

특징: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행동은 인지장애 증후군과 관련된 임상증상들의 하나일 수 있다. 인지장애 증후군의 다른 임상증상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개가 잠자거나 깨어있는 시간이 불규칙하며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등이다.

발병 시기: 7살 이상의 나이든 개

치료:

- 대소변 가리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따른다.
- 약물 치료를 한다.

홍분성 배뇨

특징: 개가 과도하게 흥분하면, 개는 적은 양의 오줌을 짙끔짙끔 떨어뜨리거나 제법 많은 양의 오줌을 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어린 개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많은 개들이 이 행동에서 회복될 수 있다.

발병 시기: 보통 강아지들 혹은 어린 개(1~7개월), 그러나 어느 나이 때든 일어날 수 있다.

치료:

- 흥분성 배뇨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예: 인사하는 동안 개를 무시한다)
- 흥분을 자극하는 사건에 대하여 개에게 "체계적민감소실법"을 실시한다.
- 흥분 시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개에게 역조건을 적용한다.
- 괄약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대소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음

특징: 대소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개는 보호자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집에서 배뇨를 하거나 배변을 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예전에 혼이 난 경험이 있는 일부 개들은 보호자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배뇨를 하지 않는다. 개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눈에 잘 띄는 실내의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나 바닥이 있다. 날씨도 이와 같은 문제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발병 시기: 주로 어린강아지(2-6개월), 그리고 7살 이상의 나이든 개들, 그러나 어느 나이든 일어날 수 있다.

치료:

집 밖에서의 배변 훈련

- 철저한 감독 혹은 크레이트 같은 곳에 가두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배뇨할 기회를 없앤다.
- 매일 몇 시간 적합한 배설을 위해 밖으로 개와 함께 나간다. 낮잠, 사료급여, 놀게 한 후 개를 데리고 나간다.
- 칭찬 혹은 보상을 사용해서 밖에서 즉각적으로 배설한 것을 보상해 준다.

□ 만약 실내에서 배설했다면 개에게 크게 소리치고 즉시 밖으로 나가게 하며 개가 성공적으로 실외에서 배설을 끝마칠 때 칭찬을 한다.

□ 애견용품 점에서 냄새중화제를 구입해서 대소변으로 더럽혀진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집 안에서의 배변 훈련

건강한 어린 강아지를 집 안에서 길들이거나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성견을 재훈련 시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강아지들은 성견을 통해 빨리 배운다. 그러므로 보호자들이 개를 가르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 개들은 대체적으로 깨끗하다. 그들은 먹고 자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배설을 한다.

□ 자연스럽고 빠르게 집 안에서 길들이기 위해서는 개의 식사와 배변하는 시간을 망라한 정확한 하루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 개가 말을 잘들을 경우,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집안에서 길들이는 것을 도와준다.

□ 꾸짖음과 체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

□ 맛있는 음식을 보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개가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자를 리더와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겨 대소변 가리기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복종성 배뇨

특징: 사람에 대한 복종적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개는 보통 인사 혹은 질책과 관련해 배뇨를 한다. 개는 복종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자세를 취할 것이다(예: 귀를 뒤로 젖히기, 눈 맞추기를 꺼리기, 움츠리거나, 구르기). 복종성 배뇨는 어린 암개에서 더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개들은 1년이 되면,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발병 시기: 보통 강아지 또는 어린 개들(1~7개월), 그러나 어느 나이 때든 발생할 수 있다.

치료: 소거, 역조건

□ 보호자는 집에 왔을 때 개를 얼마동안 철저히 무시한다. 이후 보호자들은 덜 위협적인 방법으로 개들과 인사해야 한다(무릎을 꿇는다, 눈을 응시하는 것을 피한다, 머리 위 대신에 가슴 아래를 쓰다듬는다).

□ 복종성 배뇨를 하려고 할 때 보호자들은 배뇨자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개를 유도한다(예: 공을 던지거나, 먹이보상을 이용하여 개를 앉게 한다).

□ 보호자들은 복종성 배뇨 때문에 개들을 벌하거나 질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 팔약근 긴장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는 행동조절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개의 생활 스케줄(대소변 가리기용)

	스케줄. 1		스케줄. 2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월의 자견 ◆ 하루에 3번 급식 ◆ 주인이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경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월의 자견 ◆ 하루에 3번 급식 ◆ 주인이 하루종일 집에 없는 경우
7.00(기상)	밖으로(화장실)	7.00(기상)	밖으로(화장실)
7.10-7.30	자유시간	7.10-7.30	자유시간
7.30	식사시간	7.30	식사시간
8.00	밖으로(화장실)	8.00	밖으로(화장실) 이후의 시간동안 가둠
8.15	자유시간		
8.45	크레이트에 가둠	오후 6.00	밖으로(화장실)
12.00	식사시간	6.15-6.30	자유시간
12.30	밖으로(화장실)	6.30	식사시간
12.45	자유시간	7.00	밖으로(화장실)
1.15	크레이트에 가둠	7.15	크레이트에 가둠
5.00	식사시간	9.00	식사시간
5.30	밖으로(화장실)	9.30	밖으로(화장실)
6.15	크레이트에 가둠	9.40	자유시간
8.15	밖으로(화장실)	10.10	크레이트에 가둠
8.30	자유시간	11.00	밖으로(화장실) 이후 밤 시간 동안 가둠
9.00	크레이트에 가둠		
11.00	밖으로(화장실)		
이후	밤새도록 크레이트에 가둠		

개의 행동 관찰기록지(애견 이름: _____)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훈련 최초 시작일 2006년 _____ 월 _____ 일 # 오늘 날짜 : 2006년 _____ 월 _____ 일

*크레이트 훈련 시행여부 (O : X) # 스케줄 훈련 시행여부 (O : X) *크레이트

적용 상태 : 0, 1, 2, 3점 #화장실 장소 인식여부: 0, 1, 2, 3점

시간	개의 활동상황
<u>오전 7</u>	
8	
9	
10	
11	
12	
<u>오후 1</u>	
2	
3	
4	
5	
6	
7	
8	
9	
10	
11	
12	
활동성 기록시 참고사항	1. 활동성 양호 여부 2. 크레이트 안에서의 대소변 여부 3. 화장실 장소 인식 여부 4. 크레이트 안, 밖에 있을 때 짓기 등의 여부

오줌표식 행동

특징: 오줌표식 행동은 표적물에 수직으로 소량의 오줌을 누는 것이다. 오줌표식은 집 밖으로 배뇨를 하러 잘 나갈 수 있어도 발생할 수 있다. 행동의 유발인자로는 집에 다른 동물이 들어오거나, 발정기 상태의 암캐 또는 새로운 물건이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적으로 성숙한 수캐들은 오줌표식 행동을 대부분 한다.

발병 시기: 6~24개월

치료:

- 수캐에게 중성화수술을 실시한다.
- 오줌표식 행동을 유발시키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한다.
- 표적물을 싫어하게 한다.
- 원격교정이 도움이 된다.

개에서 분리불안의 진단 및 치료

분리불안은 동물행동 치료학자에게 가장 많이 의뢰되는 케이스 중의 하나이다. 개들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개나 보호자(주인)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개들이 최초로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경우는 어미 개나 다른 동복자견들과 헤어질 때이다. 일단 새로운 주인과 만나면 그 주인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며 혼자 남겨지면 불안해 한다. 새로운 자견에게 혼자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가 유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또는 사람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자견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들의 주인들은 개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에서 개들이 주인을 졸졸 쫓아다니도록 허용한다. 그들은 개를 혼자 두기 전에 동정 어린 말투로 개에게 말을 하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개가 반기면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분리불안의 증상은 주인이 없거나 주인에게로의 접근이 제한될 때 발생한다(예를 들면 밤에 침실로의 접근이 제한될 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오랜 시간의 불안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간혹 주인들은 이와 같은 개의 행동을 악의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

- ◆ 씹기, 파기, 핥기
- ◆ 과잉활동
- ◆ 활동성의 감소, 우울, 식욕부진
- ◆ 배뇨, 배변
- ◆ 짖기
- ◆ 자해, 자기 몸을 과도하게 핥기
- ◆ 반복적인 행동

파괴, 배변, 배뇨, 짖기, 침 흘림 등은 분리불안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행동들이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 없다. 개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그들의 주인과 친해지기 위하여, 지루함이 지나쳐서, 복종심이 부족해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대신,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쳐 혼자 남겨지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들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짖으며 실내에서 배설과 배뇨를 한다. 주인에 대한 개의 지속적인 관심을 칭찬한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개가 주인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개들은 주인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진단

- ◆ 주인에게로 접근하지 못했을 경우의 증상들을 통해서
- ◆ 행동은 일반적으로 주인과 떨어진 후 5-30분 이내에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출발을 알리는 신호들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행동은 혼자 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떨어져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나타날 수도 있다.
- ◆ 분리불안이 있는 개들은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매달리며,
- ◆ 심지어는 잠시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며
- ◆ 혼자 있을 경우 먹지를 앓고, 좌불안석이고
- ◆ 주인이 떠나려는 모습만 보여도 불안해한다.
- ◆ 그리고 주인이 오면 지나치게 반가워한다.

감별진단

- ◆ 정상적인 자견의 씹는 행동
- ◆ 정상적인 탐색행동
- ◆ 전에 주인이 있을 때 벌을 받아서 주인 앞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주인이 없을 때 그 행동을 하면 자기 보상을 받는 행동
- ◆ 천둥을 동반한 폭풍에 대한 공포
- ◆ 영역방어 행동
- ◆ 오랜 시간동안 남겨졌을 때의 배변행동(자유 급식상태)
- ◆ 질환으로 인한 행동들

발병시기 및 치료: 나이에 무관하고 역조건, 탈감작, 약물요법을 적용함

효과가 별로 없는 것

- ① 다른 친구 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개와 주인과의 강한 유대관계 때문)
- ② 처벌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파괴행동과 시간이 지난 후의 처벌을 연관시키지 못한다). 개는 파괴행동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연관짓지 못하며, 자기가 어질렀던 것이 있고 이때 주인이 들어오면 이것을 서로 연관시킨다(주인=어질러짐).

- ③ 벌은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주인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도만 높인다.
- ④ 물어뜯은 물체에 개를 묶어두거나, 매운 소스를 뿌리면 그들의 긴장을 다른 데로 표출시킨다.

효과가 있는 것

- ① 개와 산책을 해라(집에서 떨어져서, 1일 2회 정도, 약 15-30분 정도)
- ② 기초 복종 훈련을 시켜라(1일 2회 10분 정도) 목표는 20분 정도의 엎드려서 "머물러"를 가르치는 것이다.
- ③ 먹이 보상을 주어라. 처음에는 명령에 반응할 때마다 보상을 주지만 나중에는 가끔씩 준다.
- ④ 개에게 정당하게 씹을 수 있는 장난감 같은 물건을 준다(주인이 나가 있을 경우에만 주며 치즈를 안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이나 구멍이 있는 것이 좋다).
- ⑤ 출발 전 약 15분 정도에 흥분을 유발하지 말고 장난감을 주며(주인이 출발을 알리는 단서를 주기 전에 준다. 출발을 파악한 후 주면 분리불안과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돌아온 후 회수한다.
- ⑥ 집을 나서기 전 가족 모두는 20-30분 정도 개를 무시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적어도 10분 정도 무시한다. 이것은 개의 흥분정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 ⑦ 때에 따라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어도 3주 정도 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좋다.
- ⑧ 산책을 제외하고는 개와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다. 단지 명령에 반응한 후 보상을 주는 정도만의 관계만 유지한다.
- ⑨ 일반적으로 주인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무시한다. 단지 주인이 먼저 원했을 경우에만 개에게 반응을 보인다.
개가 주인을 졸졸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 ⑩ 두려움을 억제하는 약제는 도움을 주지만 단독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
- ⑪ 주로 사용하는 약품들
 - Clomipramine : 1-3mg/kg bid
 - Amitriptyline : 1-3mg/kg bid
 - Fluoxetine : 1mg/kg sid
 - Alprazolam : 0.02-0.1mg/kg bid-tid
 - clonazepam : 0.1-0.5 mg/kg bid-tid
- ⑫ 출발을 알리는 단서에 대하여 민감소실되어야 한다(키를 들었다가 놓고, 옷을 입었다가 벗고 등등).
- ⑬ 개를 혼자 가두지 않도록 한다(크레이트 훈련이 되어있지 않는 이상)
- ⑭ 분리불안을 위한 출발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